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2월 미 제조 생산 1년만에 최고치
- Bloomberg: 오늘 연준 금리 동결 발표 예정... 파월 의장 발언 주목돼

[미국 금융]

- Bloomberg: 미 지역 은행들, AI 이용해 맞춤형 고객 예금 상품 추천한다

[트럼프 행정부]

- WSJ: 트럼프 팀, 상호 관세를 3개 등급으로 시행 검토했다

[미 관세 여파]

- Bloomberg: 미 석유 업계 CEO들, 트럼프와 회동 예정
- Bloomberg: 트럼프 관세 정책은 데이터 센터 비용 상승 키운다

[주택]

- Bloomberg: 미 모기지율 9주 만에 상승

[비자]

- WSJ: 트럼프의 최근 정책으로 비자와 영주권 소지자가 알아야 할 점은

[글로벌 경제]

- WSJ: 피치, 글로벌 경제 성장 전망 하향 조정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CNBC: 구글, 검색 서비스에 건강 관련 AI 기능 추가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US Factory Production Rises by Most in a Year on Auto Output

2월 미 제조 생산 1년만에 최고치

- 2월 미 제조 생산이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자동차 생산이 제조 활동의 약세를 회복시키는 데 역할을 했다.
- 연준의 어제 화요일 발표에 따르면, 미 전체 산업 생산의 4분의 3을 점유하는 제조 산업이 1월에는 불과 0.1% 상승에서 2월에는 0.9% 크게 증가했다. 투입 비용이 늘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제조 생산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코노미스트들은 이 같은 증가세가 계속될 수 있을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는 반응이다.

Bloomberg: Powell's Remarks to Be Scrutinized as Fed Set to Hold Rates Steady

오늘 연준 금리 동결 발표 예정... 파월 의장 발언 주목돼

- 연준은 오늘 오후 2시 금리가 변동 없이 4.25%~4.5%로 유지된다고 발표하는 동시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지켜본다는 입장을 취할 예정이다.
- 연준은 관세 전쟁을 둘러싼 불확실성의 경제 여파를 우선 관망할 예정이다. 즉, 금리 경로에 대한 특정한 정책을 정하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현재 트럼프의 관세 시행과 미 무역 파트너들의 보복 행위 등이 미 소비자 신뢰지수를 악화시키고 향후 인플레이에 대한 미국인의 예상치도 상승시켰다. 트럼프가 관세 시행을 발표한 직후 이를 유예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관세 전쟁이 미 경제에 중국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확실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 한마디로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연준은 우선 '지켜보자'라는 입장이며 특정 금리 정책을 취하는데 신중한 모양새다.

[미국 금융]

Bloomberg: Fifth Third Among Banks Using AI to Help Lure Customer Deposits

미 지역 은행들, AI 이용해 맞춤형 고객 예금 상품 추천한다

- 미국의 지역 은행인 Fifth Third Bancorp, Huntington Bancshares Inc, Valley National Bancorp는 인공지능을 이용해 고객의 데이터를 수집한다. 고객 저축에 대한 경쟁이 커지면서 은행들은 고객들에게 맞춤형 예금 상품들을 추천하고 있다.
- 온라인에 능숙해진 고객들은 더 나은 이자율 상품을 찾고 있으며, 저축이 용자를 위한 주요 수입원인 은행들은 고객이 다른 은행으로 이탈하지 않고 계속 은행을 유지하게 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 뉴저지 모리스타운의 Valley National 은행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고객에게 맞춤형 메시지를 보내고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통해 고객의 특정 은행 계좌에 적합한 대상인지 확인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WSJ: Trump Team Explored Simplified Plan for Reciprocal Tariffs

트럼프 팀, 상호 관세를 3개 등급으로 시행 검토했다

-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다른 나라에서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에 동일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율할지 논의 중이다. 4월 2일의 트럼프의 관세 시행 발표 일정에 맞추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 조율에 애쓰고 있다.
- 트럼프 팀은 최근에 수백 개 국가에 대한 관세 시행률을 3개 등급으로 나누는 보다 간단한 방법을 검토했었으나 이는 철회되었다.
- 트럼프 팀은 이제 어떻게 개별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관세를 실행해야 할지 방법을 찾는 중이다.
- 스콧 베센트 연방 재무장관은 어제 화요일 오전에 행정부는 상호 관세 부과에 초점을 맞추어 개별화된 관세 접근을 추진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WSJ 기사

[미 관세 여파]

Bloomberg: Oil Titans Meet With Trump as US Unwinds Environmental Rules

미 석유 업계 CEO들, 트럼프와 회동 예정

- 미국 주요 석유 기업 CEO 15명 이상이 트럼프와 백악관에서 회동한다. 업계는 트럼프의 친석유 정책과 수출 규제 완화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유가 하락과 무역 관세로 인한 우려를 전달할 계획이다.
- 트럼프는 저유가 정책을 강조하며 에너지 가격 인하를 추진하고 있지만, 업계는 가격 하락이 생산 확대와 투자 지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 에너지부가 제시한 배럴당 50달러 목표 가격은 일부 미국 내 생산을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배럴당 80달러 수준이 생산 활성화를 위한 적정 가격”이라고 석유·가스 개발 회사 Continental Resources의 설립자 Harold Hamm은 인터뷰에서 밝혔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Trump Loves AI But His Tariffs Ramp Up Costs for Data Centers

트럼프 관세 정책은 데이터 센터 비용 상승 키운다

- 트럼프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관련 데이터 센터에 올인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미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세우는데 수천억 달러가 소요되고 있고 이러한 비용이 더 상승하게 된다는 점이다.
-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등은 인공지능 주도권을 위해 중국과 경쟁하고 있으며 이 산업은 미국의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들의 센터가 건설된 이후 관련 장비의 필요로 해외에서 하드웨어를 수입해야 하는데 무역정책이 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이미 중국에 20% 관세 부과, 멕시코에도 25% 시행 가능성이 있는데, 이들 국가는 미 컴퓨터 장비 주요 수입국이다.

Bloomberg 기사

[주택]

Bloomberg: US Mortgage Rates Increase for First Time in Nine Weeks 미 모기지율 9주 만에 상승

- 미국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가 3월 14일 종료된 지난주에 6.72%로 5베이시스 포인트 상승하며, 올해 들어 처음으로 반등했다. 15년 고정 모기지 금리도 함께 올랐다.
- 모기지 금리 상승으로 채용자 신청 지수가 전주 대비 13% 감소했으며, 주택 구매 신청 지수는 0.1% 소폭 증가했다. 모기지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 여전히 높은 가격에 제약을 받는 주택 시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Bloomberg 기사

[비자]

WSJ: What Green Card and Visa Holders Need to Know About Recent Deportations 트럼프의 최근 정책으로 비자와 영주권 소지자가 알아야 할 점은

- 트럼프 행정부는 마약 등 범죄 혐의가 있는 영주권과 비자 소지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들의 케이스를 이민 법안에서 심의할 동안에는 이들을 일시적으로 풀어주기보다 감금하고 있다.
- 행정부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인 경우 강제 출국시키고 있다.
- 비자 소지자 등 비시민권자가 해외에서 미국으로 돌아오면, 이민국 직원은 그들이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비자를 소지한 경우에도 세관 및 국경 보호국 직원은 건강, 범죄, 보안 및 외교 정책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이유로 비자를 불허로 간주하고 취소할 수 있다. 이민국 직원은 일반적으로 비자 소지자를 거부하는 최종 권한도 가지고 있다.

WSJ 기사

[글로벌 경제]

WSJ: Fitch Lowers World Growth Forecast Amid Tariff Chaos 피치, 글로벌 경제 성장 전망 하향 조정

- 신용평가사 피치 레이팅스(Fitch Ratings)는 미국의 무역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2025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2.3%로, 미국의 성장률 전망은 2.1%에서 1.7%로 하향 조정했다. 2026년도 역시 당초 1.7%에서 1.5%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 피치사는 최근 경제 전망 업데이트에서 “미국 새 행정부가 글로벌 무역 전쟁을 시작하면서 미국과 세계 경제 성장률이 감소하고, 미국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며,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금리 인하가 지연될 것”이라고 밝혔다.
- 지난달 트럼프가 캐나다, 멕시코, 중국 등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급증했다. 피치는 미국의 효과적 관세율(ETR)이 2024년

2.3%에서 2025년 18%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며, 더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 피치는 관세 충격이 미국 소비자 물가를 1%포인트 추가 상승시킬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준이 금리 인하를 올해 말까지 미룰 것으로 예상했다. 정책 불확실성이 기업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CNBC: Google announces new health-care AI updates for Search

구글, 검색 서비스에 건강 관련 AI 기능 추가

- 구글은 검색 서비스에 새로운 건강 관련 업데이트를 도입했다. 'What People Suggest'라는 새로운 기능은 AI를 활용해 유사한 건강 상태를 가진 환자들의 온라인 경험담을 모아 제공한다.
- 구글은 검색 결과에 표시되는 건강 정보 패널을 '수천 개'의 추가 건강 주제로 확대했다. 이 기능은 현재 미국 내 모바일 기기에서 제공되지만 더 많은 언어와 국가에서도 제공될 예정이다.
- 일부 의료 전문가들은 AI 개요의 답변이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이에 구글은 최근 건강 부문에서 집중 개선된 AI 모델 Gemini를 활용하여 건강 관련 검색어에 대한 AI 개요(AI Overviews) 기능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CNBC 기사

[보고서]

뉴욕증시, 美 금리결정 앞두고 다시 하락...나스닥 1.7%↓ 투자자들, 연준전망·파월 발언 촉각...불확실성 유지에 변동성 장세 지속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을 하루 앞두고 18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지난 2거래일 간의 반등 흐름을 멈추고 다시 하락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60.32포인트 (-0.62%) 내린 41,581.31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60.46포인트(-1.07%) 내린 5,614.66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304.54포인트(-1.71%) 내린 17,504.12에 각각 마감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